

사회

신불자에 107억 불법대출 '한심한 수협'

완도소안수협 전 쌍촌지점장 등 6명 영장·27명 입건

뇌물 받고 감정평가 없이 돈 빌려줘

수익원의 뇌물을 받고 신용불량인 테리어업자에게 1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전 수협 지점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불법대출 과정에서 업자에게 속아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기초수급자와 노인 등 20여명은 한순간에 수천만원에서 2억원대의 대출금을 떠안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피의자로 처벌까지 받게 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2일 완도소안수협 쌍촌지점 전 지점장 이모(44)씨와 전·현직 직원 4명,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 테리어업자 임모(36)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수협 직원 2명과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 수탁자 등 모두 2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 2010년 9월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임씨에게 107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모집책을 통해 모은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았고, 이씨 등에게 현금과 차량·성접대 등 2억원 규모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받은 이씨 등은 먼저 대출을 해주고, 임씨는 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해당 대출에 대한 담보를 내세우는 '선 대출, 후 담보권 설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대출금에 못 미치는 부동산으로 담보권을 설정했지만 이씨 등은 이에 따른 적격심사나 감정평가도 모두 생략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임씨는 모집책들을 이용해 기초수급자와 60~70대 노인들에게 200만~300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빌린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뒤, 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대출의 담보권을 설정했다. 이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17명은 거액의 빚을 떠안았으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까지 됐다. 불법대출과정에서 부동산이 생기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이도 생겼다.

또 임씨는 대출금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6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 1동의 등기부등본을 조작해 세입자를 줄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 직원들이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씨에게 무리한 대출을 지속해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렀다"며 "문제가 된 쌍촌지점에서 200억~300억원의 수도권 부실 대출해준 사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불법대출 수년간 몰라... 감사시스템 허술

서민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이 잇따라 방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단위 금융기관들의 경우 인맥에 따른 불법대출이 관행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진 완도소안수협 쌍촌지점의 근무 직원에 5~6명에 불과했다.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자 임모(36)씨도 이 같은 점을 악용했다. 첫 거래 당시만 하더라도 임씨는 신용이 높은 사업가였다. 임씨는 초기에는 신용을 지켰고 뇌물 등으로 직원을 현혹했다.

허술한 감사시스템도 이들의

불법을 방조했다. 완도소안수협은 자체 감사없이 2년에 한차례 수협중앙회의 감사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 임씨와 수협의 검은 돈 거래는 6~7년동안 계속됐지만 지난 2011년 정기감사에서야 적발됐다.

이마저도 전체 불법대출규모(107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15억원에 불과했다. 피래 금융사고를 간파한 수협 본점에서 재감사를 요청할 정도였다. 완도소안수협한 관계자는 "서류상 완벽할 경우에는 불법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로수 낙엽 퇴비로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매곡동에서 가로수 낙엽을 농가에 퇴비로 지원하기 위해 쓸어 담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성매매 업주 영장 기각 규탄

광주·전남지역 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12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여성업인 성매매 업주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지검은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산속 움막 살며 3년간 절도 행각

북부경찰, 30대 검거

30대 남성이 3년간 생필품을 훔쳐 산속 움막에서 생활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얼마 전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300m 높이 산 정상 인근에서 정모(35)씨가 거주하는 움막을 발견했다. 움막 안에는 난방용 전기팬넬과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망원경, 기타 등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대화를 중립하고 공사현장을 전전하다 모 종교단체에 빠졌다가 나오면서 대인기피증을 앓아왔다는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이곳에 움막을 지어 놓고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인근 공동 화장실에서 씻고 근처 전신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

며 살았다.

생계를 위한 먹거리나 옷가지 등은 대부분 인근 공사현장이나 작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훔쳐서 충당했다. 정씨의 움막에는 공사현장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등산화, 구두, 점퍼 등이 발견됐다.

움막 위를 덮고 있는 차광막 역시 지난 8월 말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등산화를 발견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절도 건만 최근 1년 사이에 26건, 340만원 상당에 달했다.

정씨의 3년 반 동안 이어온 산속 '타산 생활'은 주민의 신고로 검거돼, 경찰이 그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원전 불안 대규모 반핵 시위로

15일 집회 앞두고 영광원전대책추진위 결성

영광원전의 잇따른 고장과 가동중단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 주민과 전국 반핵·환경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광원전법규민대책추진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이·통장과 군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 참담대

회를 갖고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영광군 흥농읍 영광원전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광 지역 각 읍·면 반영위위원장, 청년회, 종교단체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와 전국단위 환경단체 등 80여 개 단체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영광원전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분노와 이를 은폐하고 호도하는데에만 급급했던 한수원 등 정부당국에 대한 불만과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대책위는 결의대회에서 영광원전 1~6호기 즉각 가동중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 점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영광원전이 지금까지 부실로 운영되는 책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무의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있다"며 "현재의 '착종 안전위원회'를 전면 해체하고 지역민이 추천하는 믿을 수 있는 위원들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점검 후 가동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바 이번 결의대회가 대책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장기적이고 격렬해질 것이라 점을 예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방이라는 별칭도 붙여주지 않는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안정피로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는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쬐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붓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재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재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의 대표장관 한의사 김명삼장관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주점 062-368-5075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베네, 투시랑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시공: 내로당건설 분양 및 임대문의: 062-576-8938-016-885-0881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1월 9일 오픈

TODAM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시공: 내로당건설 분양 및 임대문의: 062-576-8938-016-885-0881